

제목: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 시편 32장 6-1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해는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사랑으로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 1)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_\_\_\_\_입니다. (6절)
- 2) 구원의 노래로 \_\_\_\_\_을 세우십니다. (7절)
- 3) \_\_\_\_\_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8절)
- 4) \_\_\_\_\_하심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10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개척 된 교회 (뉴저지 지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성탄	
신년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너희 묵은 땅은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 (Hosea 10: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 도 자  
 Call to Worship ..... Presider
- \* 찬 양 ..... 다 갈 이  
 Praise .....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 갈 이  
 Prayer ..... All Together
- 성경말씀 ..... 시편 32편 6-11절 .....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 Psalms 32: 6-11 구약 824 페이지 ..... Presider
- 말 씬 .....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 김성민 목사  
 Message ..... The Life of Joy ..... Rev. Kim
- 특별찬양 ..... 김성정 전도사  
 Special Praise ..... Pastor Faith Kim
- 헌금/기도 ..... 다 갈 이  
 Offering and Prayer .....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 도 자  
 Announcement .....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 다 갈 이  
 Praise and Prayer ..... Lord Here I am ..... All Together
- \* 축 도 ..... 설 교 자  
 Benediction .....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가장 좋은 선물)

2020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성탄절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많은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TV에서도 화려한 쇼를 볼 수 없었다. 거리는 한산하고 백화점도 사람들로 북적이지는 않았다. 그 중 더 많은 변화는 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선물과 카드도 이전과 현저하게 줄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불필요한 것은 뒤로하고 실질적이고 짧은 내용의 글이지만 서로 진정한 마음을 주고받게 것이다.

이러한 중에 얼마 전 집에 소포가 하나 왔다. “나에게 올 것이 없는데 무엇인가?”하여 급하게 열어 보았다. 선물이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누가 이것을 집으로 보냈을까? 궁금했다. 다름 아닌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부부였다. 너무 좋은 선물을 주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가슴으로 적어 내려간 글이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과 편지를 준 것이어서 더욱 마음이 불편했지만 큰 기쁨으로 받았다. 올해 다른 분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카드 전부가 귀한 것이지만 그 카드는 나에게 정말 특별한 것이었다. 2세 목회를 하는 후배 부부의 결단과 사역의 의지 그리고 헌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위하여 한 것이 없는 나였는데, 오히려 나에게 고맙다고 하니 이것을 어쩌면 좋은가?

나는 그날 그 카드를 읽고 선물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불편했다. 고맙다는 단어가 모자란 상황이었다. 거기다가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 그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생각했을까? 가서 구입해서 포장하여 소포를 붙이고 반기까지 잘 도착할 것을 얼마나 기다렸을까?를 생각하니 그것은 계산이 안 되는 값어치였다. 답례 전화를 하면서 마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 같아 또 다시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가슴의 선물을 보냈다고 전했으나 얼마나 내 마음을 이해했을까?

나는 그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 주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Amazon 회사를 통해서 우편으로 보내시지 않았다. 사랑의 편지를 직접 적으시고 십자가로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나를 생각하셨을까? 또한 지금도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의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값어치 있는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또다시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 “더 믿음생활을 잘하고 목회를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신다.

어찌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밖에는 없다. 그리고 대가가 없는 헌신과 충성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깨닫는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야할 길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임을 깨닫는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2. 기도의 삶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기 위하여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미국과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교회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Silk Wave 선교회: 선교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 4. 11월모임

송구영신 예배(온라인) 12월 31일(목) 오후 11시 45분 - 오전 12시 20분  
신년예배 1월 3일(주) 예배 시

### 5. 별세

이영애 성도 어머니 12월 18일 (San Francisco)

### 6. 주일예배 시 (방역)

- 1)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2) 되도록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지 않습니다.
- 3) 서로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 4)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름과 시간을 출석 종이에 적습니다.
- 5) 인사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합니다.
- 6) 화장실은 예배당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만을 사용합니다.
- 7) 찬양/찬송을 소리 내어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 8)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없으나 예배 전과 후에 대화는 가능합니다.
- 9) 하지만 예배 시 “아멘”은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